

‘광화시대’ 콘텐츠 제작 1차 위탁용역 선정평가 종합심사평

이번 < '광화시대' 몰입형 영상 및 지능형 인포메이션 콘텐츠 제작 > 사업은 다가올 글로벌 5G 시대의 개막에 맞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와 경쟁력있는 실감형 기술의 결합을 통해 광화문 일대를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점화하기 위한 목표로 기획되었다. 공모사업에는 총 4개의 제안사가 참여하였으며, 광화시대 8종의 콘텐츠 중 3개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을 제안 받았다. 세가지 과업의 내용은 1. 광화원 - 실감 미디어파크 5G 기반 영상콘텐츠 2. 광화인 - 지능형 홀로그램 인포메이션 콘텐츠 3. 광화전차 - 혼합현실(MR) 어트랙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이다.

지원업체 제안서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은 동일한 과업 내용안에서 다양한 접근의 스토리텔링에서부터 기술적 가능성의 영역까지 비교적 다양했고,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접근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, 공통적으로 인공지능(인공인간), 자율주행, 메타버스등 현재 국내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시장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실감미디어의 모든 기술이 총 망라되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.

총 6명의 심사위원이 선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제안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한 팀의 제안사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. 주로 광화문 일대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관계성 및 유관 기관과의 사전협약과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.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전체 사업의 각 콘텐츠에서 요구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세부적으로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비교적 기술적인 접근에 국한된 경우가 있었다.

이번 '광화시대' 사업을 통해 현재의 광화문 광장이 대한민국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을 넘어 전세계인들에게 글로벌 랜드마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.